

있다. 以上考察한 바 이 容器的 用途에 關해서는 燈臺로 斷定할 條  
件이 具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或說을 참작하면 一種의 酒器 또는  
香罍이 또는 或種의 醫療器 等 異說이 있으나 이 亦是 莫辨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象嵌  
技法釉調 等으로 미루어  
이 그릇의 年代는 大略  
十三世紀頃 것이 아닐가  
(二九六〇、一〇、八)

만이 亦是 分明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磁質로  
보아 이 容器는 外形으  
로 보면 靑磁象嵌 그릇  
이지만 燈心 楕圓形空筒  
만은 複瓣꽃봉오리 모양  
의 靑磁陽刻이고 釉調도  
外部의 杯形보다는 高음  
게 發色되어 있음에 注  
意된다. 또 杯形의 外  
面에는 그 口邊에 雷文  
白象嵌, 그 胴部三面에  
는 黑白牡丹象嵌이 장식  
되었고 器의 內底와 굽  
다리 밑에는 施釉하지  
않아서 赭色을 보이고

### 論山陽村面の支石墓群

金元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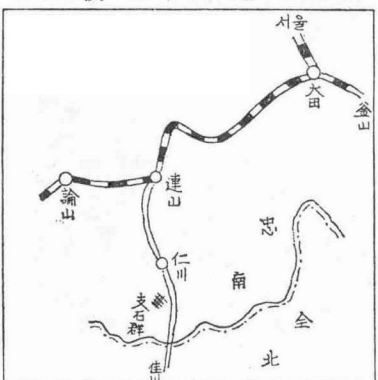
여기 支石墓群은 六·二五動亂 前에 實査한 것인데 그後 再調査한  
다면서 뜻을 못이루고 있고 其當時 撮影한 寫眞도 어디 들어 갖는지 찾  
을 길이 없으나 多幸히 分布圖만은 남아 있어 여기서 그 存在만을 記錄  
해 둘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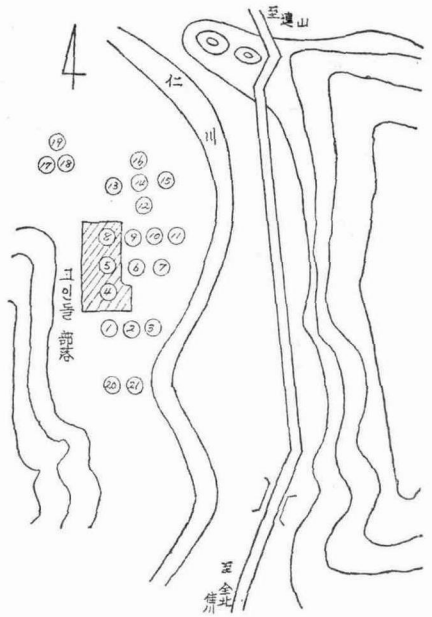
支石墓群의 確實한 地點은 論山郡 陽村面 新基里의 고인돌部落(一名  
高岩部落)이며 支石墓가 部落의 이름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은 別로 새  
로울 것이 없으나 「고인돌」이라고 그대로 使用되고 있는 것은 滋味있다.  
이 部落은 湖南線 連山驛에서 全北 益山郡 佳川里로 가는 自動車 道路를  
따라가다가 連山에서 約一二km쯤 되는 仁川里 가까이 있으며 全北과는  
山脈을 하나 사이에 두고 接하고 있다.

이 支石墓群은 그 해 五月頃 隣接인 九子谷面에 居住하고 있는 李大炯  
氏(當時 서울大 文理大生)가 그 存在를 忠南道廳에 報告한 것이며 文教  
部의 委囑에 依해 筆者는 그 해 八月 下旬에 現地를 踏査하였다.

支石墓의 總數는 二十一基며 크게  
三群을 이루며 南北으로 흐르는 仁川  
(있내)이라는 小江流에 平行하여 있다.

이 地帶는 江邊의 砂土로 덮인 平地  
帶이며 一帶가 모두 밭이고 거기에는 조  
그만 部落이 있는데 支石墓는 모두  
이 밭 가운데나 人家를 안에 있었다.  
二十一基中 七基는 밭속에 거의 埋沒  
되어 있고 나머지 十四基도 그中二  
基를 試掘해 본 結果로 보면 上石만





이 地上에 남아 있고 支石은 土砂에 파묻혀 地下에 들어가 있다. 石質은 安山岩이며 上石은 길이가 最長 二 m 부터 最長 四 m, 幅이 二乃至 三 m 程度의 大板石이며 이러한 上石이

南北을 長軸으로 하여 地上에 놓여 있는 모양은 南方式 支石墓 같으나 앞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은 支石이 土砂에 파묻히고 上石만이 露出되어 있는 탓이며 本來는 이 支石墓들은 北方式 形式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即 筆者가 地下構造를 알고자 그 硯을 試掘해 본 第六七號(圖示) 支石墓에 있어서 地表에서 八十 cm 까지는 後代의 耕作에 依한 腐土지만 그 밑은 川邊에서 흔히 보는 畝은 모래로 되어 있으며 上石을 마치고 있는 板狀支石은 이 모래 속까지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이 支石墓들은 現在보다는 훨씬 낮았던 옛 地表에 세워진 北方式 形式으로서 그것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漸次 流砂에 埋沒되어 오늘의 狀態에 이르게 된 것이 分明하다. 從來 알려져 있는 忠南地方 支石墓의 例로는 舒川郡 鍾川面 支石里, 全庇仁面, 保寧郡 周浦面, 寬倉里, 洪城郡 廣川邑 甕岩里 等地的 支石墓처럼 西海岸 地帶에 있는 것과 扶餘 恩山面 新大里 것처럼 錦江流域에 있는 것의 二群이 있는데 여기 陽村것은 大江流域 또는 海岸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仁川은 錦江의 支流이며 亦是 錦江流域群으로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寧, 洪城의 例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舒川이나 扶餘의 例는 모두 地上에 놓인 南北을 長軸으로 한 大石들이며 扶餘것은 有光教一氏(考雜二八一)에 依하면 南式일 것이라고 報告되어 있다.

### 醴泉 東本洞發見 金銅觀音菩薩立像

秦 弘 燮

醴泉 東本洞에 三層石塔과 巨大한 石佛立像이 있다. 이 石佛立像은 膝部以下가 埋沒되어 있었으나 最近에 信徒들에 依하여 埋沒된 部分이 發掘되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足部와 蓮臺의 一部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埋沒된 部分을 發掘하는 途中 今年 六月에 偶然히 金銅佛像 一軀가 發見되어 所定の 節次를 거쳐 文教部에 報告되었고 이

